

# 함평나비대축제,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보러가자GO~!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문복주 교수 기획·연출

전남 함평군이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 다'라는 주제로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제 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함평만의 특색있는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군은 29일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가 개최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 기획과 연출은 지난해에 이어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문복주 교수가 맡았다.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는 나비의 문광장에서 나비여신, 나비요정과 황박이·뽀미 등 나비와 황금박쥐 인형탈을 쓰고 노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관광객들과 함께 중앙광장까지 행진한다.

이어 중앙광장을 무대로 나비캐릭터, 나비여신, 나비요정, 미러맨&젤틀맨, 레이디스, 에너제틱맨이 순서대로 30여 분간 화려한 공연을 펼친 후 관람객들과 사진촬영 시간을 가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퍼레이드쇼는 ▲4월 25일~30일, 5월 2일에는 오후 2시 30분 ▲5월 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2회)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5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에는 오전 11시30분과 오후 2시 30분에(2회) 쇼가 개최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제27회 함평나비



대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가 특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축제 기간 꼭 방문하시어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포함한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새꿈도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진입

## 관심자 대상 입주 계약 안내 진행 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금산면 석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꿈도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금산면 석정리 총 76,571㎡의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대상지는 도양읍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정주 여건과 함께 생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행 주체인‘유한회사 고흥독일마을’은 예비 입

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약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새꿈도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흥군은 이번 사전 계약이 예비 입주자들과의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꿈도시는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고흥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정주 공간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061-830-5184) 또는 유한회사 고흥독일마을(☎1600-2102)로 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 월출산 설화 AI 애니메이션 상하이문화상회에 소개돼

중국 대표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 관람

월출산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애니메이션이 중국 문화단체에 소개됐다.

영암군이 지난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작한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를, 23일 중국 상하이문화상회(회장 양전화) 한국 방문 대표단이 관람한 것.

상하이문화상회는 상하이시 공상업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영상·예술·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120여 기업들이 회원이다.

양 회장을 포함한 문화상회 대표단은 2

박3일 일정으로 전남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들을 맞아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 등 6개의 전남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어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전남과 상하이의 협력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상영 이외에도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는 올해 서울국제AI영화제 ‘애니메이션 쏫츠’ 부문 대상, 모스크바 국제 아동영화제 ‘생성형 AI 영화’ 부문 대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어 아이들이 월출산의 설화를 문화 콘텐츠로 알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늘나라 금마왕자와 월출산 지킴이 월

출산낭자의 사랑을 월출산 구정봉의 아홉 개 우물과 연결한 이 애니메이션은, 현재 영암군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입야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 중인 곳이다.

대상 입업인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생산자 △3만㎡ 이상 육림 실적

## 장성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2015~2024년)이 있는 산주다.

지원 단계는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책정한다. 먼저, 임산물 생산업은 1구간인 0.1~2ha(헥타르)까지는 헥타르 당 94만 원, 2구간(2~6ha) 82만 원, 3구간(6ha 이

상) 70만 원이다.

육림업은 1구간(3~10ha) 헥타르 당 62만 원, 2구간(10~20ha) 47만 원, 3구간(20ha 이상) 32만 원이다.

소규모 입가(0.1~0.5ha)에는 130만 원

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입업인은 이달 말까지 입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10월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뒤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지급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를 위한 ‘2025년 장애이해공모전’ 진행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5년 장애이해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동시, 슬로건 등 세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는 구례 지역 7개 초등학교에서 총 228점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들은 구례군미술협회, 구례문화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상 16점과 특별상 8점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특별상은 구례군청,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구례소방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국립공원공

단 지리산전남사무소,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구례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8개 기관이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2025 장애이해공모전’ 시상식은 학생들의 따뜻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더욱 빛났다.

수상 학생들의 가족도 함께 참석해 감동을 나누는 축하의 장이 됐다.

한 수상자의 부모는 “작품을 준비하면

서 아이가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배운 흔적이 보여 대견하다. 오늘은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라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송태영 관장은 “올해 공모전에서도 학생들의 성숙한 시각과 배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단발성 행사가 그치지 않고, 지역 기관 및 축제와 연계해 전시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장애이해 교육의 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양시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교육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유관기관 합동 도상 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 향상

광양시는 지난 4월 24일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시는 2023년 전남 최초로 보건소 주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3년째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광양시 보건소장 이하 신속대응반 40명과 광양소방서 소속 3명이 참여했으며,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DMAT), 국립중앙의료원 전남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순천소방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오전에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이론 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전 도상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도상훈련은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 상황에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광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출동해 소방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DMAT)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병원이송, 자원관리,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허정량 광양시 보건소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각 기관 간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